일승법 귀의는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⑲ 일승(一乘)

"세존이시여, 여래는 제한이 없는 시간에 머무시며, 여래·응·등정각은 끝없는 미래의 어떤 시간에도 머무시기 때문에, 여래는 시간의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도 제한이 없어 세상을 편안하게 위로하십니다. 한량없는 대비로 한없이 세상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래를 옳게 말하는 것이며, 또 말하기를, '한량없는 법과 항상 머무는 법이 온 세상이 귀의할 곳이 된다.' 고 말하는 이도 역시 여래를 옳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도 받지 못한 세상과 의지할 곳 없는 세상에서 끝없는 미래에 다함이 없는 귀의와 항상 머무는 귀의가 되는 사람은 여래·응·등정각을 말함입니다.

법(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일승(一乘)의 도를 설하는 것입니다. 승(僧)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三乘)의 무리입니다. 이 두 가지에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므로 부분적인 귀의라 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법으로써만 구경의 법신을 얻는다고 하였고, 그 위에 다시 일승의 법신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삼승의 무리들은 공포가 있으므로 여래에게 귀의하고, 공포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를 닦아 아뇩다라삼먁삼보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에 귀의함은 구경의 귀의가 아니고, 한정이 있는 귀의가 됩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여래의 조복을 받고 여래에게 귀의하여 불법의 즐거움을 얻고 믿는 마음을 내어 법과 승에 귀의한다면, 이 둘에 귀의하는 것은 둘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고, 곧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됩니다.

제일의(第一義)에 귀의하는 것이 곧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에 귀의하는 것과 제일의는 이것이 구경에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래와 두 가지 귀의는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래가 곧 삼귀의가 됩니다. 그 까닭을 말하면, 일승의 도를 설함은 여래께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하여 사자후로 말씀하시는 것이거니와, 만일 여래께서 저들의 욕망을 따라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곧 대승이며 삼승이 없는 것이니, 삼승이 일승에 들어가고, 일승이 곧 제일의승(第一義乘)이 됩니다."

이 장에서는 일승법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일승장(一乘章)이라 말하기도 한다. 앞에서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곧 일승법에 귀의하는 것이라 하고 그 일승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가는 대목이다. 일승이란 불교의 궁극의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다. 유일무이한 궁극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절대 진리를 하나의 탈 것에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방편 상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춰 가지가지의 법을 설했으나 오직 유일한 하나의 진리를 위하여 부처님이 갖가지 법을 설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법은 오직 일승법이라 하였다.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성문, 연각, 보살의 삼승법이 있으나 이 삼승법이 결국 일승법에 나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 일승사상은 대승 경전의 대표적 경전인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 강조되고, 〈승만경〉에서도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 다시 말해 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승만 부인이 정법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대승이며, 대승이 곧 일승이라 하다가 이 대목에 와서는 일승이 제일의승이며 여기에 귀의하는 것이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라 하였다.

불교를 심층 종교라고 한다. 심층 종교란 교리의 전개가 심오하고 깊다는 뜻으로 표층 종교와 상대되는 말이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는 참 나를 찾아가는 수행의 단계마다 한 차원씩 더 높아가는 교설이 거듭 나온다. 기복적인 표층 신앙과 달리 현실 이익을 바라는 데에 매몰되지 않는다.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고도의 수행과정이 첩첩이 있는 것이다.

〈승만경〉의 이 대목에서 한 말은 삼승법(三乘法)에 귀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제일의제(第一義諦)인 일승법에 귀의해야 진정으로 여래에게 귀의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제일의제란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진짜 알맹이란 뜻이다. 상대적인 다른 것이 없는 오직 하나뿐인 것이 일승(一乘)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진여본성 작용인 의·념 의지해 살아야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⑫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2

불자 여러분! 이와 달리 세 번째 마음 거울에 맺힌 상[識]인 이미지들은 인식 대상과 감각기관이 접촉하여 받아들인 정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식(識)은 실재하지 않는 허상·망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소인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anussati, 記憶]들 역시도 실재 하지 않는 허상입니다. 현재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의식인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종자식(種子識) 역시도 환과 같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아뢰야식에 이 종자식이 저장되어 있는 한 그로 인한 과보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응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째서 허상이고 그림자와 같은 망상일 뿐인데 과보가 나타나느냐 하면, 마치 하늘에 만들어진 구름들이 자성이 없이 임시로 가화합된 존재들이지만 비와 번개 등의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 마음에 저장된 기억정보인 이 종자식들이 자성이 없지만 임시로 저장기억되어 전념(前念)이 후념(後念)으로 염염(念念) 상속되면서 그에 따른 과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저장된 종자식에 의해 과보는 염염이 상속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는 한 인과(因果)의 과보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미지들은 최초에 저장될 당시에 탐진치 등의 삼독심과 결합되어 오염된 채로 마음속 공간에 저장됩니다.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들이 탐진치 삼독심과 어떻게 결합되어 저장되느냐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다르게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억정보에 탐진치의 질량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탐진치 질량이 기억정보에 적으면 마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음을 닦고 맑힌다는 것은 마음 공간에 저장된 기억이미지가 흡수한 탐진치 삼독심 등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중에서도 마음의 본래 기능인 의(意, 거울)와 염(念, sati)을 강화시키는 염불수행이나 참선 수행이 최상승법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은 마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다차원의 마음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는 진여본성의 작용인 상주불멸하는 마음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허깨비와 같고 환과 같은 허상·망상 등의 마음 요소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중생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허깨비와 같은 허상·망상에 속지 말고 진여본성의 작용인 의·념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염불에서의 염(念)은 싸띠(sati)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념처 등의 수행법을 가르치실 때 이 싸띠란 말을 즐겨 쓰셨습니다. 이 싸띠는 결국 진여본성의 작용인 정념(正念)인 것입니다.

마음 챙김, 알아차림, 주의집중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싸띠[sati.念]는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행 도구입니다.

그리고 싸띠는 진여본성의 작용이기 때문에 삼매나 반야를 선도하여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⑲ 사유 중지의 경 ②

"침묵이란 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과 변화 바르게 이해하는 것"

"수행승들이여, 그 수행승이 그 사유에 대한 사유활동의 중지를 위한 정신활동을 일으켰지만, 탐욕과 관련되고, 성냄과 관련되고, 어리석음과 관련된, 악하고 불건전한 사유들이 생겨나면, 수행승들이여, 수행승은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해서 없애버려야 한다."

'침묵' 이란 말은 수행 가운데 흔히 거론되는 덕목이자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언어이다. 누구나 '침묵' 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알고 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진정한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침묵이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침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

먼저, 움직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을 완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많은 이들이 숙고하지 않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면 알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침묵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멀다. 침묵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없고, 알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아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는 하루 종일 말을 했더라도 침묵한 자이며,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하루 종일 한마디 말이 없었더라도 수다를 떨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부처님께서도 팔만사천법문을 말씀하시고 열반에 들기 전에 당신은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조사들도 똑같다. '그것' 을 말한 조사는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왜, 한마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을까. 참으로 간단한 이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간단한 이치에 대해 100퍼센트 확신하지 않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알아보겠다고 고집한다.

그 간단한 이치는 무엇인가? 앞부분에 말했듯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내려 놓아버리는 일이다. 내려놓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면, 대상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편안함으로 사물을 천천히 보게 된다. 천천히 보게 되면, 대상은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 대상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다면, 그는 그때부터 대상에 대한 침묵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몸이 있으니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오해하는 일도 일어나고, 말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도 있지만, 누구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 만약 억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일까? 사실 말을 하게 되면 억울함을 해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억울함을 해소한 것일까? 이것도 해소한 것이 아니다.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둘 다 억울함을 당한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인가?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마음으로 마음을 항복시키고 제압하는 일이다. 그리고 가만히 억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유하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말하려면 몸과 마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실을 증명하려면 생로병사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모른다면, 이제 억울하다는 것의 관점을 완전히 다른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억울한 일이다. 대상에게 무엇을 당한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이다. 이제 좌복에 앉아 이빨을 이빨에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고 '나' 에 대해 모르는, 이 억울함을 알아내는 것이 진정한 억울함을 해소한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